

# 여당의원 이름 일일이 부르며 호소했지만 정족수 못채워

### 국힘 퇴장으로 투표 불성립...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 민주 "국민 배신한 범죄정당"...김건희 특검법도 2표차로 3번째 무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대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앞서 진행된 김 여사 특검법 표결 후 회의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날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을 이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 대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

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 3번째 무산=김건희여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300명 투표에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2차례 폐기됐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하려면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7일 국회 국민의힘 의총장 앞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으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3번째 대통령 탄핵...국회 가결 무산된 첫 탄핵

### 노무현·박근혜는 국회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은 첫 사례로 역사에 남게됐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181명)

를 넘었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역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며 의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현재 300명) 중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여야 의원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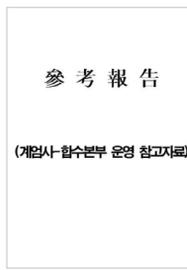
### 8쪽 짜리 '계엄사·합수부 참고자료' 추미에 "집권 영구화 노려 계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준비설을 뒷받침하는 문건(사진)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 갑)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단 비서실이 지난 11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표지에는 '참고보고'라고 적고, '계엄사·합수부 운영 참고자료'라고 명기했다. 표지 포함 전체 8쪽짜리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시)라는 소제목과 7가지 참고사항으로 구성됐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달 방첩단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



첩사령관에게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면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각 소제목마다 주요 쟁점사항이 적시돼 있다.

계엄 선포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한이 없다"고 적

혀있다.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도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다.

계엄사령부 치안처(국·조사본부)와 우리부대(방첩사)의 관계를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우리부대) 권한 및 한계도 들어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의 경우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이 포함돼 이를 참고한 흔적이 확인됐다.

강조사항에는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 사전검열 내용도 들어 있다.

또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내용은 밑줄까지 그어져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후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훥이 탄핵된 것”

### 홍준표 “보수진영 탄핵은 아냐”

### “한동훈 시건방지게 대통령 놀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이번에 만약 윤훥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는 선거환경이 훨씬 좋을 거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017년 5월 탄핵 대선은 참담했다”며 “(당시)한국 보수진영은 궤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비리 덩어리 후보이고, 그때처럼 보수진영이 궤멸되지 않았다”며 “당당히 나가자, 담담하게 대처하자”고 썼다.

이어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훥이 탄핵된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이 탄핵된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용병 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다. 기죽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다른 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 대표)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지 마라”며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에게 니(한 대표)가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카**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